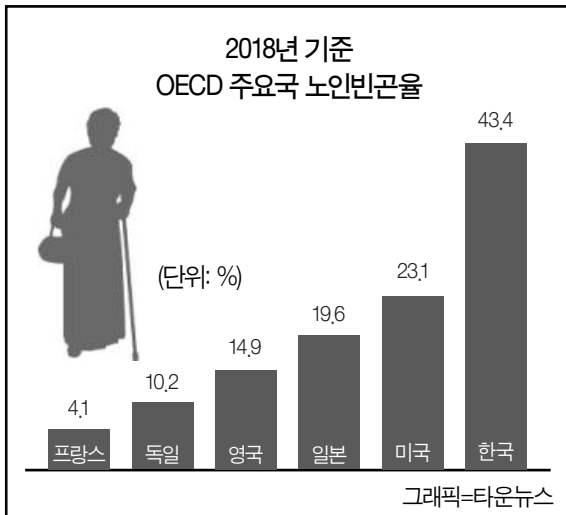


한국 노인빈곤율·고령화 속도 OECD 1위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48년에는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도 OECD 1위로 나타나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으며 이는 OECD 평균(2.6%)의 약 2배 수준으로 가장 빠른 속도라고 발표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 33.4%로 치솟을 전망이다. 인구 세 명 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얘기다. 27년 후인 204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7.4%까지 오를



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고령화 속도는 빠르는데,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연금기능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한국도 G5 국가들처럼 호봉급보다는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 관리책으로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생산자물가, 7년 9개월 만에 최고



▲ 지난달 물가지수가 급등했다. 사진=shutterstock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7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2021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4.88로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지난 2013년 4월(104.93) 이후 7년 9개월 만의 최대치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서 생산자가 시장에 출하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측정해 지수화한 것이다. 유통단계를 거치기 전인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앞서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9월까지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10월 들어 전월 대비 감소로 전환했다. 이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생산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농림수산물지수는 137.24로 전월 대비 7.9% 급증했다.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뛰면서 축산물 지수가 11.8% 오른 영향이다. 여기에 겨울 한파가 몰아쳐 양파·파·호박 등 농산물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지수 역시 7.8% 올랐다.

1월 공산품 지수는 국제유가 상승과 전방산업 수요 회복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0% 오른 101.95를, 서비스 지수는 0.5% 상승한 107.86을 기록했다.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2% 오른 102.44를 기록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해야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shutterstock

지난 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의무거주 기간이 설정됐다.

16일 '머니S'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

자에 대한 거주 의무 기간을 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 주택 입주자는 5년, 80~100% 주택 입주자는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주택 입주자는 3년, 80~100% 주택 입주자는 2년간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됐다.

다만 거주 의무 기간 가운데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 공급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이외 지역은 3년에서 5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강화됐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